

# 미래사회 비전 제시하는 '과학소설'

## 걸작 SF문학 잇달아 번역 소개... 국내창작물은 全無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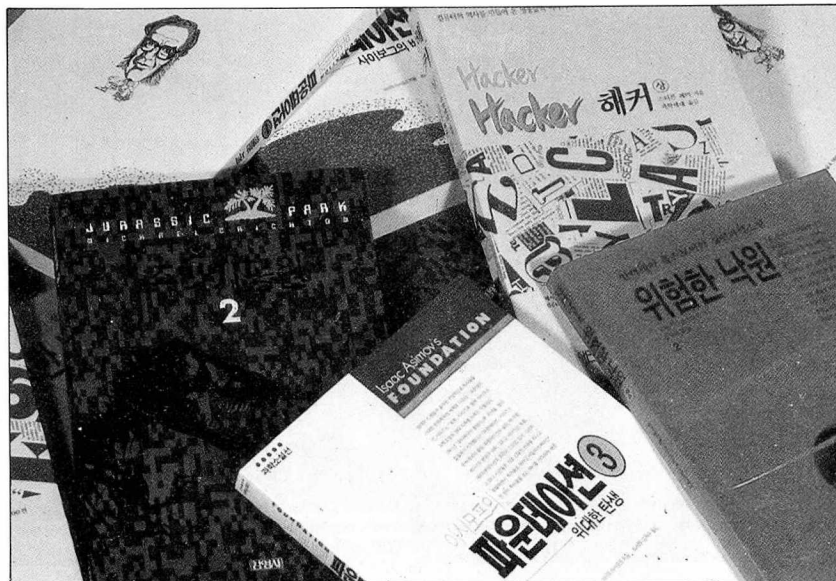
과학과 기술은 현대문명을 움직이고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때문에 현대인의 삶이란 하루가 다르게 변화·발전하는 과학기술의 세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과학과 기술이 삶과 문명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과학소설(Science fiction)의 현재적 의미는 더없이 크다.

얼마전 '외국문학'지에서 마련한 SF특집에 발표한 글을 통해 김성곤 교수는 과학소설이 지니는 현재적 의의를 "이른바 주류문학이라고 부르는 정통적 문학작품들이 지니는 경직된 주제와 문체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으며, 인류의 역사와 현재 나아가 미래를 동시에 조망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문학장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과학소설이 지니는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작품생산은 물론이거니와 그 논의조차도 미미한 실정. 그러나 최근 현대과학의 첨단이론을 다룬 책들이 이른바 '교양도서'로 자리잡아 독자층을 넓혀가고 있으며 공해, 환경문제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낳은 각종 폐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에 힘입어 외국의 과학소설들이 잇달아 번역, 출간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 잇달아 출간된 과학소설

최근 소개된 작품 중에서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이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최서래·김옥수 옮김/현대정보문화사) 「위험한 서막」 「사이보그의 비밀」 「보이지 않는 손」 「위대한 탄생」 「은하제국의 흥망」 등 총 5권이 현재 나와 있다. 이 소설은 수학·천문학·물리·기술·생물 등에 관한 대중적 과학입문서로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도 친숙한 작가가 스물두살 때인 1942년에 집필을 시작,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파운데이션 시리즈」 중 지금까지 출간된 것을 완역한 것이다. 기원의 땅 지구의 존재가 먼 과거로 잊혀져버리고 2천5백만개의 은하계 행성에 10경에 달하는 인구가 살고 있는, 먼 미래에 존재하게 될지도 모를 은하제국의 흥망사가 줄거리. 은하계에서 인류 세계를 통합하여 고도의 문명을 구가하던 제국의 쇠퇴정조를 알아차린 위대한 수학자 해리 샬던에 의해 설립된 새로운 문명의 '근원'(파운데이션)의 설립과 번역, 쇠퇴,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과 제2파운데이션의 등장을 긴박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과학소설들

감 넘치는 문체로 그리고 있다. 방대한 스케일, 치밀한 구성력, 작가의 해박한 과학지식에 근거한 상상력 등이 돋보이는 이 소설에서는 미래의 은하제국에서 벌어지는 부정과 부패, 침탈 그리고 인간사이의 갈등 등을 통해 오늘날의 우리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

하버드 의대를 졸업, M.I.T 객원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크리튼 역시 과학소설의 대가로 손꼽히는 인물. 그가 컴퓨터, 유전공학, 현대물리 등 첨단과학에 대한 방대한 양의 지식을 동원하여 쓴 '쥬라기 공원' I·II (정영옥 옮김/김영사)도 최근에 소개된 과학소설이다. 막대한 자본을 소유한 야심에 찬 자본가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2억여년전 쥬라기 시대의 공룡을 재현해낸다. 현대의 첨단유전공학인 DNA 복제를 통해 재현된 15종의 공룡들은 컴퓨터의 최첨단 기술에 의해 완벽한 통제 체제를 갖춘 '쥬라기 공원'에서 사육되는데 어느날 컴퓨터 조작 실수로 이 '쥬라기 공원은 재난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 과학발전이 지니는 맹점과 함께 상업주의와 결합한 과학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

### 치밀한 과학지식 바탕

최근에 소개된 이들 소설 외에도 비교적 근년에 출간되어 현재 서점에서 찾을 수 있는 과학소설도 몇 종 있다.

현재 6권까지 나와 있는 모음사의 '과학소설 걸작선'과 알렉세이 톨스토이의 '위험한 낙원' (강창래 옮김/가서원), 다니엘·키즈의 「알게논의 무덤 위에 한송이 꽃을」 (정연주

옮김/일월서각) 등이 그것이다.

'과학소설 걸작선'에는 물리학, 수학, 전자공학을 전공한 영국의 과학자이며 '금세기 최고의 과학소설작가' '미래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아더 C.클라크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연작이 포함되어 있다. 21세기의 우주탐험이라는 동일한 주제로 묶어질 수 있는 이 소설들은 치밀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각기 상이한 우주공간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사건들을 스틸 있게 묘사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세계를 해부하고 있다. 이밖에 역시 아더 C.클라크의 「최후의 인간」 (전동민 옮김), 데이 브레드버리의 「화성연대기」 (조윤경 옮김), 알프레드 엘튼 보크트의 「스페이스 비글」 (조윤경 옮김) 등도 SF의 걸작으로 소개된 작품.

「위험한 낙원」은 현대소련의 대표적 작가에 의해 씌어진 과학소설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죽음의 광선'을 둘러싸고 각기 자기 자신이 봉사하고 있는 신념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낙원'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자본가, 노동자, 과학자간의 갈등과 욕망, 쫓고 쫓기는 추격전과 두뇌게임을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다.

「알게논의 무덤 위에 한송이 꽃을」은, 뇌수술을 받은 한 정박아의 생체수술보고서 형식을 띤 소설로 인간 생체의 인공적 변화가 가져오는 파장과 비극을 생리심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그려내고 있다.

### 문학계 좁은 시야 국내수용 장애

이러한 과학소설들은 그 작가가 대부분 자연과학을 전공했거나 자연과학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 작품 역시 최고 SF 소설에 주어지는 '휴고상' 등을 통해 그 수준을 공인받은, 세계적 명망을 갖춘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독자들에게 SF 문학의 진면모를 접할 수 있게하고 SF 문학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리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출간되어 있는 소설들만으로는 이미 60년대초부터 새로운 문학장르로 재조명받으며 대중소설의 한 기둥으로 탄탄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서구의 성과들을 소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도 일반적인 지적이다.

소설가 복거일씨는 "토탈리콜, 터미네이터, 브이 등 과학소설과 케를 같이 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 프로그램에 몰리는 관객들은 국내에 과학소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과학소설 분야의 성과가 아직은 미약한 만큼 외국의 우수작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번역, 소개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또 이러한 노력이 중국에는 국내에서의 과학소설 생산과 본격적인 논의의 활기로 연결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현재 국내에서 과학소설이 부진한 요인에 대해 "우리나라 작가들은 과학과 먼 경험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당대의 현실에 어떤 형태로든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는 작품을 선호하는 우리 문학계의 폭 좁은 시야도 새로운 장르로서의 과학소설을 수용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지적한다.

아직은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외국 과학소설의 번역, 출간은 그동안 관심의 영역으로 진입하지 못했던 과학소설의 국내 입성을 위한 '물꼬뜨기'로 볼 수 있다. 터진 물꼬가 올바른 물길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외국작품의 번역, 소개에 보다 힘쓰는 한편, 국내 작품 생산을 부추기기 위한 관련단체, 언론계 문단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출판계의 적극적인 출판의지가 함께 아우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박남정 기자